

제일전기공업 (199820)

스몰캡



안주원

02 3770 5587
jowon.ahn@yuantakorea.com

RA 허선재

02 3770 2683
sunjae.heo@yuantakorea.com

투자 의견	Not Rated (I)
목표주가	-
현재주가 (5/24)	23,750원
상승여력	-

주가 (05/24)	23,750원
자본금	56억원
시가총액	2,639억원
주당순자산	9,284원
부채비율	29.27
총발행주식수	11,110,00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24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99,699주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8.5)	4.2	-
상대	(0.9)	(0.5)	-
절대(달려환산)	(9.2)	2.8	-

국내 전자재 시장의 라이징스타

가정용 스마트 배선기구 제조 업체

제일전기공업은 가정용 분전반, 배선기구 등의 전기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건설사와 에너지 업체에게 납품하는 스마트 배선기구 제조 업체. 2020년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PCB Ass'y (차단기 부품) 47%, 분전반 (전력 배분 장치) 16%, 상품매출 (시판용 배선기구) 16%, 배선기구 (전력 콘센트/스위치) 15%, 기타 (차단기 등) 6%.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53%, 해외(미국) 47%.

외형확대, 수익성 개선, 리스크 관리를 동반한 확실한 성장 모멘텀

- ①국내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국내 주택 분양 물량은 2018년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으며 이에 동사의 실적은 올해부터 개선되어 2022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②배선기구/분전반 고급화 추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최근 분양되는 국내 공동 주택에는 전력 효율 향상이 가능한 스마트 배선기구/분전반이 대부분 설치 되는 중. 스마트 제품 가격은 일반 제품 대비 약 8배 비싸며 이에 동사의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됨.
- ③국내 대비 3배 큰 미국 주택시장에 제품 독점공급: 미국 내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해외 고객사향 PCB Ass'y 판매량 증대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수출액 확대를 통해 국내 주택시장 변동성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역대급 분양 실적에 높아지는 2022년 실적 기대감

제일전기공업의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05억원 (YoY +6.1%)과 164억원 (YoY -14.1%)으로 전망.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PCB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 기인한 원가 부담에 따라 영업이익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2022년에는 1) 대규모로 완공되기 시작하는 국내 주택 분양 물량 2) 생산라인 자동화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3) 수익성이 더 좋은 신제품/스마트제품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별도)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매출액	1,283	1,461	1,513	1,605
영업이익	146	169	191	164
지배순이익	122	141	144	136
PER	-	-	16.6	19.5
PBR	-	-	2.6	2.3
EV/EBITDA	-	-	11.9	12.7
ROE	26.9	24.8	17.3	12.3

자료: 유안타증권

I. 기업 개요

가정용 스마트 배전 기구 제조 업체

제일전기공업은 1955년 설립,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마트 배전기구 전문 제조 업체이다. 동사의 사업 모델은 가정용 분전반, 배전기구 등의 전기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건설사와 에너지 업체에게 납품하는 구조이다. 2020년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PCB Ass'y (차단기 핵심 부품) 47%, 분전반 (전력 배분 장치) 16%, 상품 매출 (시판용 배전기구) 16%, 배전기구 (전력 콘센트/스위치) 15%, 기타 (차단기 등) 6% 이다. PCB Ass'y는 전부 미국으로 수출중에 있으며 분전반/배전기구 등의 나머지 제품은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 중이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53%, 해외(미국) 47%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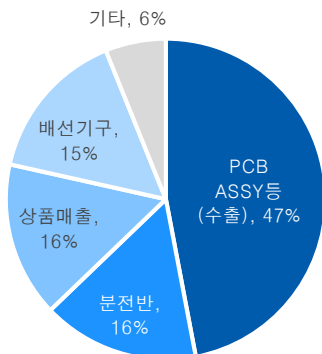
제일전기공업 주요 제품

스마트 배전기구 · 배전기구	스마트 분전반 · 차단기	AFCI/GFCI PCB Ass'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홈네트워크시스템과 연동하여 원격제어, 원격모니터링 수행 <p>스마트 배전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전력을 세분화하여 통합 제어, 실시간 전력감집, 자동 제어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한 지능형 분전반 시스템 <p>스마트 분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CI PCB ASSEMBLY는 전기화재방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AFCI의 핵심부품이며, 유해한 아크를 감지하여 선로를 차단하는 부품 • GFCI PCB ASSEMBLY는 인체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며, 누설되는 전류를 감지하여 선로를 차단하는 GFCI의 핵심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배선에서 전기 기구와 접속하거나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기구 <p>배전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하 전류를 개폐함과 동시에 단락 및 지락 사고 발생시 각종 계전기와의 조합으로 신속히 전기 선로를 차단하여 기기 및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 <p>차단기</p> 	

※ AFCI:아크차단기, GFCI:누전차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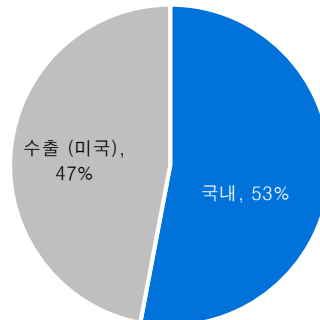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 (2020년 기준)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지역별 매출 비중 (2020년 기준)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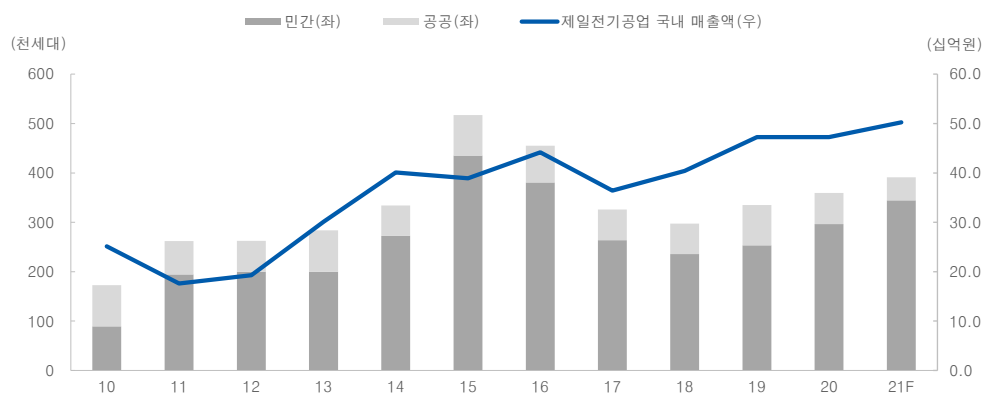
II. 투자포인트

1) 국내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

국내 공동 주택 분양 물량(민영+공공)이 2018 년을 저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8 년 29 만호 → 19 년 33 만호 → 20 년 36 만호). 그 이유는 2016 년 8.25 대책을 시작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분양 물량이 감소했으나 2020 년 7 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분양 가격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양 수요 증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분양 물량 확대는 풍부한 유동성 및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2023 년 3 기 신도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1 년 예상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39 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9 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주택 분양 물량에 따라 동사의 실적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2022 년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1) 19~20 년에 분양된 주택 물량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특히 내년엔 대규모로 준공되기 시작하고 2) 배선기구 설치하는 마감 공사 때 이뤄지며 3) 동사는 2020 년 기준 국내 배선기구 시장 점유율 25%를 확보한 1 등 업체이기 때문이다.

연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vs 제일전기공업 국내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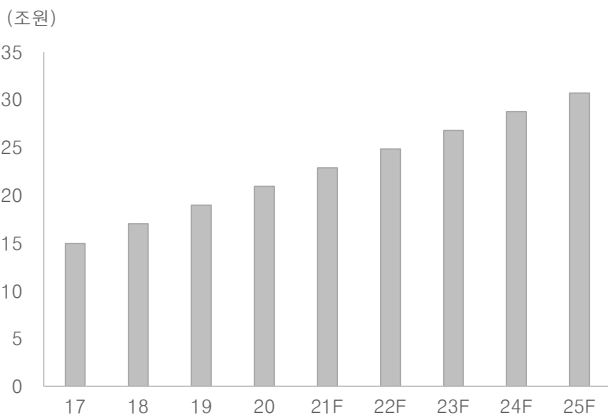
주: 국내 매출액은 배선기구와 분전반 매출액, 자료: REPS,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스마트홈 시장 성장에 따른 배전기구/분전반 고급화

최근 세대 당 사용하는 가전제품 수가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 및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스마트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홈이란 주택에서 IoT 시스템, 자동화 프로세스, 기기 원격 제어 등을 통해 전자제품, 조명, 냉난방 등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개념이다. 스마트홈 구성의 핵심 요소는 스마트 배전기구와 분전반이다. 일반 배전기구와 분전반은 단순한 전력의 공급/배분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스마트 배전기구와 분전반은 대기전력 자동 차단, 조명 원격 제어, 실시간 전력 모니터링 등의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 배전기구/분전반은 일반 제품 대비 약 8배 비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에 스마트 제품 판매량 증대는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처럼 국내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2017년 15조원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해 약 31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공기청정기 등의 생활가전부터 커피머신 등의 소형가전, 피부관리기 등의 건강가전 및 샤워/드라이룸 등의 반려동물 전용 가전제품까지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5,067kWh → 2019년 10,039 kWh). 더불어 코로나 여파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되면서 에너지 절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5만호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는 스마트 배전기구와 분전반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효율 개선이 큰 화두가 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스마트 배전기구 및 분전반이 일반 제품들을 빠르게 잠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전망치



자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품 라인업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 분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원을 꺼 둔 상태에서도 전기 제품이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기전력자동차단 기능을 가진 스위치 또는 콘센트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10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에 외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은 가설, 정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스위치 또는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에 설치되어 세대 내 모든 전등을 한번에 끌 수 있는 스위치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9호에 의거하여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상의 주택에는 일괄소등스위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전력을 세분화하여 통합 제어, 실시간 전력검침, 자동 제어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한 지능형 분전반 시스템 •관련 법령: 의무 사용 법령 없음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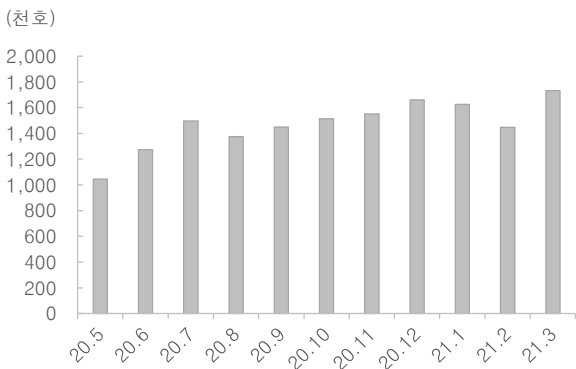
3) 국내 대비 3배 큰 미국 주택시장에 제품 독점 공급

동사는 해외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해 향후 꾸준한 매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연간 주택 공급 물량이 국내 대비 약 3 배정도 크고 국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해외 판매 확대 요인은 기존 고객사향 판매량 확대와 신규 파트너 확보에 기인한다.

동사는 현재 미국 최대 차단기 제조 업체인 이튼(Eaton)에게 AFCI(아크차단기)의 핵심 부품인 PCB(인쇄회로기판)을 2000 년부터 독점공급하고 있다. AFCI 는 전기 합선에 따른 스파크를 감지하고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전기 화재 예방 장치이며 미국에서는 2002 년부터 모든 주택에 AFCI 설치를 의무화 했다. 미국 AFCI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20 년 기준 약 1.35 조원의 규모를 형성했다. 미국 내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2020 년 5 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성장해 2021 년 3 월에 최고점을 달성하며 15 년만에 기록적인 호황기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미국 AFCI 시장의 1 등 업체인 이튼의 AFCI 판매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년, 2022 년 동사의 이튼향 PCB 수출액은 800 억원에서 925 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동사는 프랑스 최대 차단기 제조 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Schneider Electric)과 양사 제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판매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을 통해 동사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고사양 배선기구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프리미엄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슈나이더사는 동사의 제품을 통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판매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계약 건은 현재 코로나 여파로 구체적 사업 추진 속도가 부진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매출 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월별 신규 주택 착공 물량 추이



자료: 블룸버그,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해외 주요 고객사

Schneider Electric	Eaton Corporation	Hubbell Incorpora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3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에너지 관리 및 자동의 통합 솔루션 글로벌 기업. • 1991년 미국의 배선기기 업체 Square D 와 2004년 글로벌 배선기구 업체 Clipsal 인수 • 2019년 기준 137,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년 설립되어 현재 약 175개국에 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 1994년 미국 Westinghouse의 Distribution and Controls Business Unit, 2003년에는 Delta plc.의 Electrical Division을 인수 • 2019년 기준 9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24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88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현재 세계 9개 국가에서 배선기기 및 전기조명 제품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 미국 배선기구 시장 선두 업체 중 하나이며 2018년 기준 약 19,700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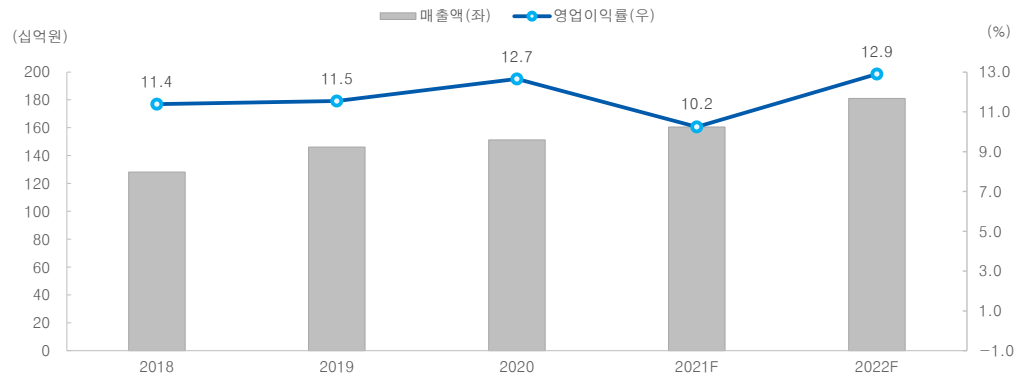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I. 실적 전망

역대급 분양 실적에 높아지는 2022년 실적 기대감

제일전기공업의 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605억원 (YoY +6.1%)과 164억원 (YoY -14.1%)으로 전망.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PCB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 기인한 원가 부담에 따라 영업이익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2022년에는 1) 대규모로 완공되기 시작하는 국내 주택 분양 물량 2) 생산라인 자동화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3) 수익성이 더 좋은 신제품/스마트제품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도체 품귀 현상은 전기 업계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당사는 1.5년치 제품별 핵심 부품을 미리 발주해 놓은 관계로 부품 수급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제일전기공업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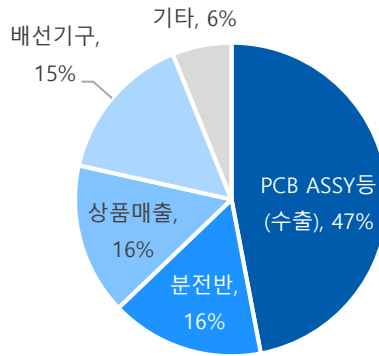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2018	2019	2020	2021E	2022E
매출액	128.3	146.1	151.3	160.5	181.1
증가율	4.1%	13.9%	3.6%	6.1%	12.8%
배선기구	28.7	29.5	23.3	24.3	27.4
분전반	11.7	17.8	24.0	26.0	29.4
PCB Ass'y 등	53.7	63.1	71.1	78.0	90.2
상품매출	23.6	24.3	23.7	22.2	23.2
기타	10.5	11.4	9.3	10.0	10.9
영업이익	14.6	16.9	19.1	16.4	23.4
영업이익률	11.4%	11.5%	12.7%	10.2%	12.9%
당기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순이익률	9.5%	9.7%	9.5%	8.4%	10.9%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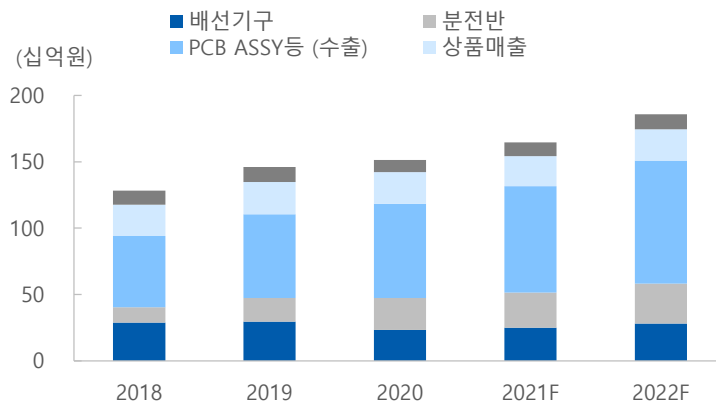
Key Chart

제일전기공업 제품군별 매출액 비중 (20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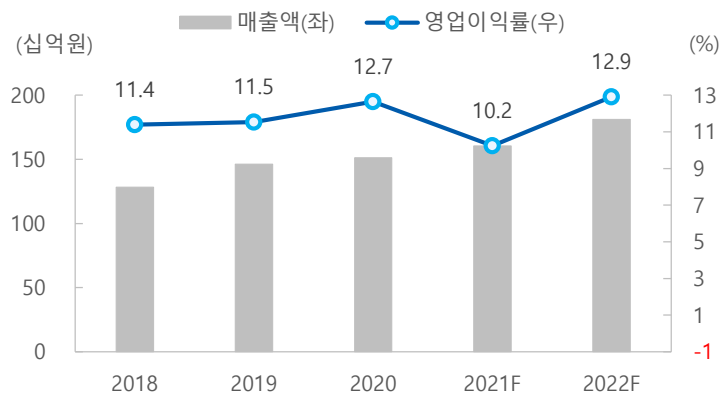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제일전기공업,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일전기공업 (199820) 추정재무제표 (K-IFRS 별도)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매출액	1,283	1,461	1,513	1,605	1,811
매출원가	1,038	1,194	1,214	1,326	1,452
매출총이익	244	268	300	279	359
판매비	98	99	108	115	126
영업이익	146	169	191	164	234
EBITDA	163	190	218	186	253
영업외손익	1	-2	-22	-5	-1
외환관련손익	6	3	-23	-13	-13
이자손익	-6	-4	-3	-2	-1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1	-2	4	11	1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	166	169	160	233
법인세비용	25	25	26	24	35
계속사업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지배지분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포괄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지배지분포괄이익	122	141	144	136	198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영업활동 현금흐름	176	109	148	143	168
당기순이익	122	141	144	136	198
감가상각비	16	20	25	20	18
외환손익	0	3	10	13	13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39	-65	-28	-27	-62
기타현금흐름	-1	10	-4	1	1
투자활동 현금흐름	-84	-57	-230	-195	-182
투자자산	-6	-7	-108	-104	-102
유형자산 증가 (CAPEX)	-67	-43	-44	-48	-49
유형자산 감소	0	1	10	0	0
기타현금흐름	-11	-9	-88	-43	-31
재무활동 현금흐름	-84	-64	218	-14	-20
단기차입금	-37	10	-23	-23	-23
사채 및 장기차입금	-48	-62	-11	0	0
자본	0	0	252	0	0
현금배당	0	-12	0	12	12
기타현금흐름	0	-1	-1	-3	-9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1	182	175
현금의 증감	8	-12	134	117	141
기초 현금	9	17	5	139	256
기말 현금	17	5	139	256	397
NOPLAT	146	169	191	164	234
FCF	110	67	104	95	119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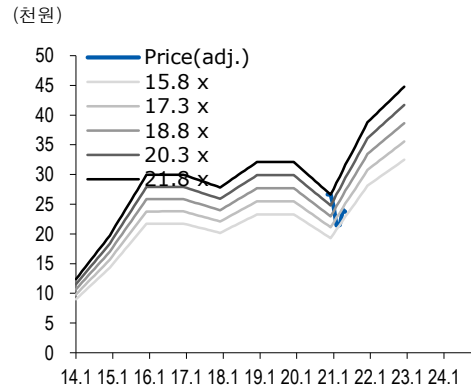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유동자산	474	539	733	879	1,086
현금및현금성자산	17	5	139	256	39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35	228	255	270	305
재고자산	209	276	228	242	273
비유동자산	451	475	600	578	559
유형자산	250	272	283	262	245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19	10	120	120	120
자산총계	925	1,014	1,333	1,457	1,645
유동부채	390	374	295	284	27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98	186	161	173	186
단기차입금	129	139	116	93	70
유동성장기부채	52	11	0	0	0
비유동부채	29	5	7	7	7
장기차입금	21	0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419	379	302	291	281
지배지분	506	635	1,031	1,167	1,364
자본금	48	48	56	56	56
자본잉여금	0	0	245	245	245
이익잉여금	458	587	731	867	1,064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506	635	1,031	1,167	1,364
순차입금	179	125	-126	-266	-431
총차입금	201	151	117	9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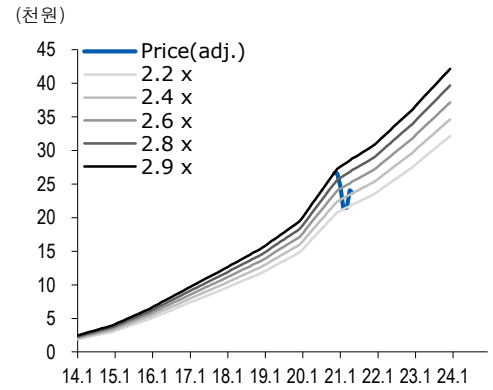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EPS	1,276	1,472	1,473	1,220	1,778
BPS	5,271	6,617	9,284	10,504	12,282
EBITDAPS	1,698	1,979	2,232	1,677	2,276
SPS	13,361	15,224	15,485	14,451	16,301
DPS	0	125	0	0	0
PER	-	-	16.6	19.5	13.4
PBR	-	-	2.6	2.3	1.9
EV/EBITDA	-	-	11.9	12.7	8.7
PSR	-	-	1.6	1.6	1.5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 (12월)	2018A	2019A	2020A	2021F	2022F
매출액 증가율 (%)	4.9	13.9	3.6	6.1	12.8
영업이익 증가율 (%)	-20.1	15.5	13.5	-14.1	42.0
지배순이익 증가율 (%)	-7.2	15.3	1.9	-5.8	45.7
매출총이익률 (%)	19.0	18.3	19.8	17.4	19.9
영업이익률 (%)	11.4	11.5	12.7	10.2	12.9
지배순이익률 (%)	9.5	9.7	9.5	8.4	10.9
EBITDA 마진 (%)	12.7	13.0	14.4	11.6	14.0
ROIC	23.0	26.2	27.0	22.6	31.3
ROA	14.2	14.6	12.3	9.7	12.7
ROE	26.9	24.8	17.3	12.3	15.6
부채비율 (%)	82.7	59.6	29.3	24.9	20.6
순차입금/자기자본 (%)	35.4	19.7	-12.2	-22.8	-31.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3.1	40.8	61.5	65.8	1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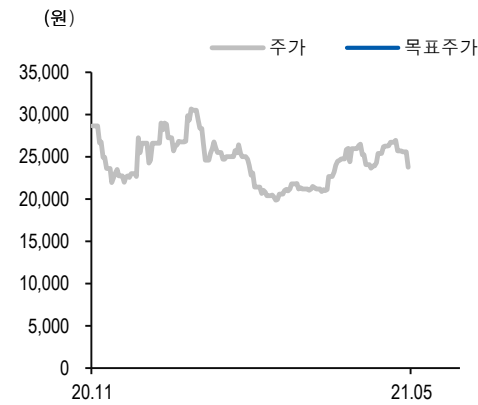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1-05-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0
Buy(매수)	94.1
Hold(중립)	5.9
Sell(비중축소)	0.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1-05-22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안주원)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